



구례 청년농업인 엄창규씨가 전남도농업기술원의 컨설팅을 통해 배농사와 식품가공 등 6차산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구례 청년농업인 엄창규씨

배농사·가공 6차산업 선도

‘자연농부’ 농장 운영…도농기원 청년창업컨설팅 받아
‘힐링테마파크’ 조성 치유농업·농촌관광 활성화 목표

지리산 노고단 기슭의 청정지역 구례 화엄사 아래에서 배농사와 식품가공으로 6차산업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 청년농부가 있다.

‘자연농부’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엄창규씨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강소농 민간전문가가 추진하는 청년창업 컨설팅을 통해 농산물가공공장을 신축하는 등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와 농업소득을 올리기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엄 대표는 대학에서 식품생명공학을 전공하고 13년간 식품회사와 의료기 제품 회사에서 품질관리와 개발업무의 사회경험을 쌓다가 3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농촌에 정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농가주택을 신축하고 농기구입, 과수원 임차 등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은 부단한 노력과 시간 없이는 힘든 일이었다.

농촌 정착 과정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엄 대표에게 큰 힘이 돼주는 곳이 있었다. 바로 전남농업기술원 민간전문가가 실시하는 컨설팅 도움과 정부의 청년창업농 정책이었다. 이 제도는 청년창업농에 선정될 경우 민간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컨설팅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다.

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경영역량진단과 표준진단 등 미비점과 개선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었다.

엄창규 대표의 목표는 사회생활의 경험과 농장경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은 힐링 테마 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엄창규 대표는 “6차산업화를 위한 마을기업화, 약용작물재배, 가공, 체험, 동물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 치유농업 연계, 약용성분 추출 등을 통해 제약·화장품 회사에 판매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진출과 해외 선진 농업과의 기술 교류 등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농업기술원 정찬수 농촌지원과장은 “향후 농업의 미래는 청년농업인의 정착에 달려 있으며 청년농업인들이 1차 생산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가공 및 체험 등과 연계해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농업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청년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꾸준히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농기원, 차 수출용 가공분석 연구동 준공

제품 개발·품질 안전성 지원 기대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3일 “차산업 연구소는 전남 산 녹·홍차 수출확대를 위한 차 수출용 가공분석 연구동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전남도 도의회 농수위 위원회를 비롯해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차문화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차 수출용 가공분석 연구동은 농촌진흥청 지원 연구

기반 고도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2년여의 공사 끝에 준공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번 연구동 증축을 계기로 k-pop열풍을 타고 한국 차(茶)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용 차 제품 개발, 글로벌 수준의 품질과 안전성 분석 지원 등을 통해 국산차 수출 활성화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준공식에는 그동안 육성한 신품종 소개와 블렌딩 차, 수출용 홍차, 녹차와 홍

차를 첨가한 쌀 호두과자, 차를 주 원료로 한 숙취해소 음료 등을 선보여 참석자의 관심을 모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 김성일 원장은 “이번 차 수출용 가공분석 연구동 신축을 계기로 수출용 제품개발 기술 지원을 통해 수출 전략 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일 농수위 위원장은 “차는 전남도 특화 작목이면서 천연건강식품으로 미래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며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일류 차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아스파라거스 여름 다수확 재배기술 개발

도농기원, 실버 맞춤형 틈새 소득 작물 확대 계획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3일 “아스파라거스를 봄부터 초가을까지 장기간 수확할 수 있는 입경(줄기세우기) 방법을 구명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남부 지역에서 2월부터 9월까지 수확하다 보면 뿌리의 양분 소모가 많아져 새순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에서 어린 순을 줄기로 키워 광합성을

유도한 후 양분을 뿌리로 보내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입경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확립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봄철 수확을 마친 후 5월 상순경부터 식물체 한 그루당 굵기가 1cm 정도 되는 어린 순을 일주일 에 1개씩 남기면서 수확하고 1개월간 3~5개 정도를 일정한 간격으로 키우는 순차적 입경방법과, 1주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일제히 어린 순을 줄기로 키우

는 일제 입경방법이다.

또한 농사를 처음 짓는 경우 활용하기 쉬운 일제입경 방법을 쓰다가 점진적으로 순차입경 방법을 활용하면 아스파라거스를 장기간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송동모 원예연구소장은 “아스파라거스는 화순과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1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고령자와 도시에서 귀농한 은퇴자들에게 알맞은 실버 맞춤형 틈새 소득 작목으로 전망이 매우 밝아 재배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산림조합중앙회, 창립 57주년 기념식 성료

산림조합중앙회가 최근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23일 “서울시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을 비롯한 회원 산림조합장, 임업인 대표, 산림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조합 창립 5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조합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권익신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62년 창립됐다.

또한 국가 산림정책 실행의 중심축이자 사유림 경영의 대표 조직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정부를 비롯한 임업인과 협력해 푸른 숲을 가꿔



야 할 책임이 산림조합에 있다”며 “산림의 공공성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산림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산림조합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혁신에 또 혁신 거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축사에서 “산림조

합은 치산녹화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산주와 임업인 더 나아가 국민을 위해 산림현장 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그간의 역사와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전남농협, 산지유통 역량강화 워크숍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23일 “최근 장성 백양관광호텔에서 연합사업조직 담당자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지유통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했다.

전남의 연합사업은 소규모 농가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로 산지의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8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총남 금산 만인산 농협APC 박기범 센터장의 ‘생산자 조직화 및 마케팅 기법’, 농협경제지주 대외마케팅부 문병돈 과장의 ‘식자재 시장의 이해와 마케팅 전략’에 대한 특강, 광양시연협사업단의 연합마케팅 추진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사업추진 기법을 공유했다.

또한 분과별 토론회를 통해 전남 연합사업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농가소득 5천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판매 사업이 활성화 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협의 산지유통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조직화 및 마케팅 기법에 대한 교육 강화로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전남 농산물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광주농협, 농가소득 증대 현장간담회

신작물 도입…5천만원 달성 결의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23일 “최근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 동광주점 내 힐링플라워스마트팜에서 광주시 농협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내년 농가소득 5천

만원 달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 만큼 신 소득작물 도입, 지자체 협력사업·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가소득 5천만원을 기필 달성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광주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건

학하고 지역 내 로컬푸드 시장 형성을 위해 사업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 했으며 최근 출하되고 있는 황금 수박과 애플수박 재배 농가를 방문해 소비자의 구매 욕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이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일수 본부장은 “농업인분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범농협 조직의 역량을 집결해 농가소득 5천만원을 반드시 달성 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상가 매매 [급매]

■ 북구 문흥동 (6층) 아파트 1만세대 위치
(병원, 대형학원, 한의원, 스포츠, 기타적합)

■ 6차선 도로접 코너변 위치

■ 보증금 1억에 월 450만 임대가능

▶ 감정/시세 → 15억
매 가 → 8억

(신규 사업자 환영)

062-382-5500

010-6670-9800

전원주택 토지매매

■ 상무지구에서 15분
장성 IC, 장성호(댐) 1분

■ 최고의 전원주택 / 산새줄음.공기줄음

1. A타입 - 주택 1채 → 8천만원(예상)
(토지 50평 + 텃밭 + 8평전원주택)

2. B타입 - 주택 1채 → 1억8천만 (예상)
(토지 100평 + 건물 20평 + 서비스면적 8평)

3. C타입 - 주택 1채 → 2억5천만원 (예상)
(토지 150평 + 건물 30평 + 서비스면적 8평+텃밭)

4. D타입 -주택 1채 → 3억8천만~5억(예상)
(토지 150평 + 건물 45평(2층주택)+텃밭)

062-382-5500

010-6670-9800

경매교육 [기초 특수]

☆ 무료 교육 2회 실시 ☆ (월,수,토)

① 기초 실전반 (기초 +실전)

② 중급 실전반 (기초 +실전 + 특별)

③ 투자 특수반

(유치권,지분,법치,개발,절반가격)

③ 직업 전문반

(사무실근무,전문컨설팅)

※ 사무실 함께 쓰실분

(책상,컴퓨터 → 제공 / 주1회 물건분석스터디)

경매 물건 추천

1. 북구 중흥동 (상가주택) 토30평,건 145평
▶ 감정가 2억9천3백 → 최저가 2억5백

2. 북구 중흥동 (상가건물) 토52평,건43평
▶ 감정가 2억9천6백 → 최저가 2억7백

3. 북구 일곡동 (4층중 1층상가)토15,건41평
▶ 감정가 3억7천6백 → 최저가 2억6천3백

4. 남구 구동 (다가구원룸) 토81평,건127평
▶ 감정가 4억4백 → 최저가 4억4백

062-382-5500

010-6670-9800